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城隍堂)

성황당이 두 곳에 있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子正)과 9월에 연 2회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음력 정월에 지내는 제사에서는 동민의 무사(無事) 강녕(康寧)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며, 9월에 지내는 동제는 별신굿을 곁들여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2) 죽진봉수대(竹津烽燧臺)

고려시대에 설치된 봉수대로서 남으로는 전반인산봉수대(全反仁山烽燧臺)와 연결하고, 북으로는 죽변곶봉수대(竹邊串烽燧臺)와 이어지던 군사시설이다.

3) 후망대(後望臺)

봉수대(烽燧臺)가 있던 부근 높은 곳에 후망대(後望臺)가 있어, 고려 때부터 외적(外賊)을 감시하였다고 한다.

제11절 온양1리(溫洋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온곤동(蘊崑洞), 골온곤(谷蘊崑), 양정동(洋亭洞) 3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로 쇠치봉(쇠峙峰)의 지맥이 온곤(蘊崑)을 둘러싸며 동쪽으로 뻗어있다. 동해와 접하며, 서쪽은 명도리(明道里)와 접한다. 남쪽은 7번국도로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온양2리 지역이며, 6km 거리에 죽변항이 있다. 마을의 동회관은 2015년에 개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골온곤(谷蘊崑)

1820년경에 개척된 골온곤(谷蘊崑)이 있다.

2) 양정동(洋亭洞)

1696년에 해주인(海州人) 오훤(吳暄)이라는 사람이 원남면[현 매화면] 덕신리에서 이주

(移住)하여 살면서 양정(洋亭)이라 하였다. 마을 중앙에 돌출(突出)된 산정(山頂)에 굵은 노송(老松)이 있어 정자(亭子)와 같고, 대해(大海)를 바라보는 경관(景觀)이 뛰어나 양정(洋亭)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3) 온곤동(蘊崑洞)

1500년경에 안씨(安氏)가 마을을 개척하여 정자형(井字型)의 와가(瓦家)를 짓고 살았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1652년에 어모장군(禦侮將軍) 경상좌병(慶常左兵) 울산후장군(蔚山候將軍) 인동인(仁同人) 장인보(張仁輔)가 퇴역(退役)하여 길지(吉地)를 찾아 입향하였다 전한다. 사방이 산(山)으로 둘러싸였다 하여 온곤(蘊崑)이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9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밀양 박씨(密陽朴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해주 오씨(海州吳氏), 광산 김씨(光山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도덕봉(道德峯)

온곤동(蘊崑洞)의 서쪽에 있는 팔도봉(八道峯)으로, 우후공(虞候公) 장인보(張仁輔)가 후손에게 선과 덕과 의를 기르기 위하여 명명(命名)한 산인데, 그의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월 8일에 산신(山神)에게 수복강녕(壽福康寧)을 기원하던 산(山)이다.

2) 문옥봉(文玉峯)

온곤동(蘊崑洞) 동쪽에 있는 산(山)인데, 산봉(山峰)의 정상(頂上)이 붓끝과 같이 뽕족하게 솟아있으므로 문옥봉(文玉峯)이라 하였으며, 산 남쪽의 골(谷) 이름도 문옥골(文玉谷)이라 부른다.

3) 성황당(城隍堂)

성황당(城隍堂)은 온곤동(蘊崑洞)과 양정동(洋亭洞)에 2개소가 있다. 온곤동(蘊崑洞)의 성황당은 수령 500년의 노송(老松)으로 매우 영감이 있다고 전하며,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시(子時)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양정동(洋亭洞)의 성황당은 수령 약 400년의 향나무로 매년 음력 정월 15일 자시(子時)에 제사를 지낸다.

4) 수영정(隨影亭)

온곤동(蘊崑洞) 우백호(右白虎)의 낮은 산록(山麓)인데, 1742년(영조 18)에 관직에서 퇴임한 선무랑(宣務郎) 황산찰방공(黃山察訪公)인 인동(仁同) 장만학(張萬學)이 이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향유(鄉儒)와 풍월(風月)을 즐겼다고 한다. 더운 여름철에도 종일토록 그늘이 들어 시원하므로 수영정(隨影亭)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폐허되었다.

5) 수죽학당(修竹學堂)

1881년(고종 18)에 인동인(仁同人) 취현(翠軒) 장석무(張錫武)가 1860년(철종 11) 선인(先人)인 전주인(全州人) 이희호(李熙虎)가 증여한 수죽관(修竹館)이란 현판(懸板)의 이름을 따서 수죽학당(修竹學堂)을 창설하고, 접장(接長)으로서 많은 후진(後進)을 양성하였다. 당시 울진의 큰 접(接)으로서 많은 인재(人材)를 육성한 학당(學堂)이었으나, 현재는 학당지(學堂趾)와 현판(懸板)만 전승된다.

6) 염전(鹽田)

양정동(洋亭洞) 북쪽 해안(海岸) 사장(沙場)에 발달했으며 1914년 이후부터 폐지되었다.

7) 풍월대(風月臺)

온곤동(蘊崑洞)의 뒷산으로서 이 산(山) 정상(頂上)에서 사방을 관망하면 망망한 대해와 골장진(骨長津) 죽변곶항(竹邊串港)이 한눈에 보인다. 1858년(철종 9)에 현령(縣令) 이희호(李熙虎)가 인동인(仁同人) 죽현(竹軒) 장의중(張宜重) 좌수(座首)와 함께 이곳에서 시(詩)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고 하여, 풍월대(風月臺)라 명명했다고 전한다.

8) 학미산(鶴尾山)

온곤동(蘊崑洞) 좌청룡산(左靑龍山)인데, 산(山) 입구인 목은 힘 있고 좁으며, 산끝이 새의 꼬리와 같이 퍼져서 흡사 학(鶴)의 꼬리와 같다 하여 학미산(鶴尾山)이라 부른다. 광산 노씨(光山盧氏) 입향조의 묘소가 있다.